

Title: The Judges – Sermon 10

Scripture: Judges 13:1-5

Date preached: May 22nd 2022

Scripture: Judges 13:1-5

1 Again the children of Israel did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the LORD delivered them into the hand of the Philistines for forty years. **2** Now there was a certain man from Zorah, of the family of the Danites, whose name *was* Manoah; and his wife *was* barren and had no children. **3** And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 woman and said to her, “Indeed now, you are barren and have borne no children, but you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4** Now therefore, please be careful not to drink wine or *similar* drink, and not to eat anything unclean. **5** For behold, you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no razor shall come upon his head, for the child shall be a Nazirite to God from the womb; and he shall begin to deliver Israel out of the hand of the Philistines.”

1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 범죄하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40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2 그때 소라 땅에 단 자손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3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지금까지는 자식을 낳지 못했으나 이제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4 그러므로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5 네가 아들을 낳은 후 그의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일을 착수할 것이다.”

Review

Before we look at Samson let us briefly review what we looked at last week. Last time we looked at judges nine, ten and eleven. They were the minor judges Ibzan, Elon and Abdon. As I have said before they are considered minor because the bible tells us very little about them. This is certainly the case here. Sometimes bible commentators or bible teachers like to embellish or add to the stories they read in the bible. It can be interesting, or fun to imagine the other things people did that are not recorded in scripture. For example many of us wonder about Jesus' life prior to the start of His public ministry. Some authors have created books of speculative fiction that try to imagine what Jesus was doing during His early years. I'm not necessarily opposed to such works of imagination. Sometimes when they are well researched and not sensational they can be helpful or instructive. The greater background we have to biblical times and culture the greater understanding we have.

However we must read and understand such things for what they are. They are not inspired by God, they are works of fiction. For this reason what is revealed in God's Word is always to take precedent.

After saying this I am sure we all recognise that the bible does not give us exhaustive accounts of what people said or did. The writer John tells us this in his gospel regarding the Lord Jesus.

And there are also many other things that Jesus did, which if they were written one by one, I suppose that even the world itself could not contain the books that would be written. Amen. (John 21:25)

In other words the biblical authors inspired through the Holy Spirit were selective. They did not, in fact they could not record everything. This is certainly the case for the judges Ibzan, Elon and

Abdon. No doubt they said and did many things, but we have no record of them. What we are told is as follows.

The ninth judge of Israel was Ibzan. His name means “father of a target” or “father of coldness” and he came from Bethlehem. This was probably not the Bethlehem in Judah but the northern town of Bethlehem. He had a very large family with 60 children (30 sons and 30 daughters). This means that he had multiple wives. It also tells us that he was a wealthy and prosperous man. He judged Israel for seven years.

He was followed by the tenth judge Elon. Elon means “oak” or “strong.” We know that he was from the region of Zebulun and that he judged Israel for ten years. Sadly that is about all we know about him.

The final judge we looked at last time was Abdon. He was the eleventh judge and his name means “servant” or “servile.” His home town was Pirathon located a little south of Shechem in Ephraim. Again we are told about him having a large family. He had forty sons and thirty grandsons. Each of these was lucky enough to have their own donkey. Again this illustrates that Abdon was a very rich man. He judged Israel for eight years.

Samson 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주에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9, 10, 11 명의 판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소사사 입산, 엘론, 압돈이었습니다. 내가 전에 말했듯이 성경은 그들에 대해 거의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사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확실히 여기에 해당됩니다. 때때로 성경 주석가나 성경 교사는 성경에서 읽은 이야기를 꾸미거나 추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경전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상상하는 것은 흥미롭거나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공생애 시작 전의 예수님의 삶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일부 저자들은 예수가 초기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상상하려고 하는 사변적 허구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상상의 작품에 반드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그것들이 잘 조사되고 선정적이지 않을 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시대와 문화에 대한 더 큰 배경을 가지고 더 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신의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허구의 작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이 항상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난 후에 나는 성경이 사람들이 말하거나 행한 일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자 요한은 주 예수에 관한 그의 복음서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밖에도 많으니 만일 하나하나 기록한다면 그 기록된 책들을 세상이라도 담을 수 없을 줄로 압니다. 아멘. (요한복음 21:25)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 저자들은 선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모든 것을 녹음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입산, 엘론, 압돈 사사들에게 해당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많은 것을 말하고 행했지만, 우리는 그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홉 번째 사사는 입산입니다. 그의 이름은 "목표물의 아버지" 또는 "냉기의 아버지"를 의미하며 그는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유다의 베들레헴이 아니라 북쪽 베들레헴의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60 명의 자녀(30 명의 아들과 30 명의 딸)가 있는 매우 대가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러 아내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가 부유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알려 줍니다. 그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10 대 재판관 엘론이 그 뒤를 이었다. Elon 은 "오크" 또는 "강한"을 의미합니다. 그가 스불론 지방 출신으로 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을 우리가 압니다. 슬프게도 그것이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마지

막 사사는 압돈이었습니다. 그는 열한 번째 사사였으며 그의 이름은 "중" 또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의 고향은 에브라임 세겔에서 조금 남쪽에 있는 비라돈이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그에게 대가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에게는 40 명의 아들과 30 명의 손자가 있었다. 이들 각각은 자신의 당나귀를 가질 만큼 충분히 운이 좋았습니다. 다시 이것은 압돈이 매우 부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8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The twelfth judge Samson

Today then we turn to the twelfth and final judge given to us in the book of judges; Samson. As an aside it's worth noting that in 1st Samuel, Eli the priest, Samuel the prophet, and Samuel's sons were also considered judges of Israel. However we will not be looking at these judges in this particular study series.

Let us then turn to Samson. After Gideon, Samson receives the most coverage of any of the judges. His story is told across 96 verses. So we have plenty of things to cover. Let us begin by placing his details into our cycle of sin. We are told for the final time in Judges that the people again did evil in God's sight. In verse 1 of chapter 13 we read.

Again the children of Israel did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the LORD delivered them into the hand of the Philistines for forty years.

The exact nature of this evil is not given to us. But given Israel's past history we can easily imagine that they rejected the worship of God and turned to pagan idols. God in his righteous anger gave them over to the Philistines for 40 years. The nature of the Philistine oppression is not given to us in detail. It appears that they occupied or had dominion over the land.

This means that they were not attacking it with armies as some of the earlier outside oppressors had done. It also suggests that the relationship they had with the people of Israel was slightly different. Although there always remains resentment when an occupying force is in your country people learn to live with or accept it. I think for example of the French during world war 2. Many French people resented the German occupation of their country. Many resisted strongly against it. However there were also people who lived with and even co-operated with their occupiers. I imagine that the same thing applied to God's people here.

After 40 years the Lord provides a judge in the person of Samson. Interestingly in this case the bible does not record the people of Israel calling for God's deliverance. This perhaps explains why Samson never raised, or led an army to fight against the Philistines. Maybe the people were relatively content with Philistine rule. I suspect that many of the Israelites lived in harmony with their Philistine neighbours. This helps explain why they didn't join Samson in fighting them. Basically they did not want Samson to disrupt the peace they had or "rock the boat."

Samson's leadership would bring 20 years of peace. Today we will look at three things in Samson's life. His special birth, his Philistine wife and his first fights with the Philistines.

오늘 우리는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열두 번째이자 마지막 사사에게로 향합니다. 삼손. 제쳐두고, 사무엘상에서 엘리 제사장, 선지자 사무엘, 사무엘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간주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특정 연구 시리즈에서 이러한 심사위원을 살펴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삼손으로 돌아가 봅시다. 기드온 다음으로 삼손은 사사들 중 가장 많은 보도를 받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96 절에 걸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세부 사항을 우리의 죄의

순환에 넣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13 장 1 절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더라 이 악의 정확한 본질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 숭배를 거부하고 이교도 우상으로 변했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진노로 그들을 40 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압제의 성격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점령했거나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전의 외부 압제자들 중 일부가 했던 것처럼 군대로 그곳을 공격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약간 달랐음을 암시합니다. 점령군이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항상 분노가 남아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함께 사는 법을 배웁니다. 제 2 차 세계 대전 중 프랑스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많은 프랑스인들이 독일의 자국 점령에 분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들과 함께 살고 심지어 협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40 년 후에 주님은 삼손이라는 사람으로 사사를 마련하십니다. 흥미롭게도 이 경우에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일으키거나 이끌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블레셋의 통치에 비교적 만족했을 것입니다. 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이웃들과 조화롭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삼손과 함께 싸우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삼손이 그들이 누리고 있던 평화를 깨뜨리거나 “배를 흔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지도력은 20 년의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의 삶에서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의 특별한 출생, 그의 블레셋 아내 및 블레셋 사람들과의 첫 번째 싸움.

Introduction

Samson I'm sure you would agree is a very interesting bible figure. He is arguably the best known of the judges and his story is a favourite of Sunday school children around the world. He presents us with a complex character. At times, he is temperamental, unpredictable and undependable. At other times he is courageous, faithful and brave. He is considered a man of great faith and is mentioned in the Hebrews hall of faith (Hebrews 11: 32). He was a man blessed by God with superhuman strength, in superhero terms he is the bible's Incredible Hulk. But he also possessed a terrible weakness, he was often mastered by the desires of the flesh. He had a particular weakness for the ladies. It was this weakness that would lead to his downfall. We might look at him today and think that he was a man that could have achieved so much but who ended up dying in shameful and degrading circumstances. This is partly why studying him is still valuable today. We do not want to follow in Samson's path. Let us turn now to consider Samson's birth.

Samson 은 당신이 매우 흥미로운 성경 인물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틀림없이 심사 위원 중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복잡한 캐릭터를 제시합니다. 때때로 그는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으며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른 때는 용감하고 충실하며 용감합니다. 그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간주되며 히브리서 믿음의 전당에 언급됩니다(히브리서 11:32). 신의 축복을 받은 초인적인 힘을 가진 남자, 슈퍼히어로로 말하자면 성경의 인크레더블 헐크. 그러나 그는 또한 무서운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종종 육체의 욕망에 지배당했습니다. 그는 여자들에게 특별한 약점이 있었다. 그의 몰락을 가져온 것은 바로 이 약점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그를 보고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었지만 부끄럽고 굴욕적인 상황에서 결국

죽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그를 연구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길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삼손의 탄생을 살펴보기로 하자.

Samson's birth

2 Now there was a certain man from Zorah, of the family of the Danites, whose name was Manoah; and his wife was barren and had no children. 3 And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 woman and said to her, "Indeed now, you are barren and have borne no children, but you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The first thing for us to note is the unique situation regarding Samson's birth. We met all the other judges when they were adults. They had already lived long and full lives when God called them to lead Israel. Samson was very different. He was earmarked by God for his special position before he was even conceived.

Verse two tells us about his parents. His father was Manoah who lived in Zorah, a town about 14 miles west of Jerusalem. He was from the tribe of Dan. His wife's name is not mentioned. I'll refer to her from now on as Mrs Manoah.

We also know that their marriage union had failed to produce any children. As I have said before in this culture to be childless was a great burden and brought great shame and misery particularly to the wife. They are however about to receive some amazing news from an even more amazing visitor. Verse 3 tells us that Mrs Manoah was visited by "**the Angel of the Lord.**" As we saw previously in the Judges (Judges 2:1-5 and 6:11-24) this is not a reference to a regular angel. This is an appearance of the Lord Jesus Christ, it is a Christophany. The Lord Jesus tells Mrs Manoah that she will conceive and have a son. But there are certain regulations she must follow for herself and later the child. Let's read on.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삼손의 탄생에 관한 독특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심사 위원이 성인이었을 때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도록 부르셨을 때 그들은 이미 장수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삼손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잉태되기도 전에 자신의 특별한 위치에 대해 하나님의 지정을 받았습니다. 2 절은 그의 부모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의 아버지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4 마일 떨어진 소라에 사는 마노아였습니다. 그는 단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녀를 마노아 부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는 또한 그들의 결혼 조합이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전에 말했듯이 이 문화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고 특히 아내에게 큰 수치와 불행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훨씬 더 놀라운 방문자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받게 됩니다. 3 절은 마노아 부인에게 "여호와와 사자"가 방문했다고 알려 줍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이전에 보았듯이(삿 2:1-5 및 6:11-24) 이것은 정규 천사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크리스토파니입니다. 주 예수님은 마노아에게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과 나중에 아이를 위해 따라야 하는 특정 규정이 있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4 Now therefore, please be careful not to drink wine or *similar* drink, and not to eat anything unclean. 5 For behold, you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no razor shall come upon his head, for the child shall be a Nazirite to God from the womb; and he shall begin to deliver Israel out of the hand of the Philistines."

What is being described here is what is referred to as a Nazarite vow. Although they sound similar don't get confused with Nazarene and Nazarite. The word Nazarite comes from a Hebrew word that means to separate or be distinct from. In practice someone who took this vow would for a period of time separate themselves from the world and dedicate themselves to God. We find the rules for

making such a vow in Numbers chapter 6. In order to remain pure and holy the person would abstain from three things. They would not cut their hair for the duration of the vow, they would not touch or go near dead people or things, and they would not touch any “alcoholic” product. This included not eating grapes, raisins or even grape skins.

Typically, a Nazarite vow would be for a limited time. The Mishna (a collection of Jewish oral law) suggests a period of 30 days. Once the period of the vow was over the person would make an offering at the temple and could then return to normal life. Samson though was to be special. He was to maintain his Nazarite vow for life. This was because God had a special purpose for him. Let us jump ahead here to read about Samson's birth.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나사렛 서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들리지만 나사렛 사람과 나사렛 사람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나실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분리 또는 구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서원을 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우리는 민수기 6장에서 그러한 서원에 대한 규칙을 찾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람은 세 가지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서원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 죽은 사람이나 물건을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았고, "알코올" 제품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포도, 건포도, 포도 껍질도 먹지 않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실인의 서원은 제한된 기간 동안입니다. 미슈나(유대인의 구전 율법 모음)는 30 일의 기간을 제시합니다. 서원 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은 성전에서 공양을 하고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삼손은 특별해야 했습니다. 그는 나실인의 평생 서원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목적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삼손의 탄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4 So the woman bore a son and called his name Samson; and the child grew, and the LORD blessed him. 25 And the Spirit of the LORD began to move upon him at Mahaneh Dan between Zorah and Eshtaol. (Judges 13:24-25)

Exactly as the Lord had promised the woman gives birth to a son. She names him Samson which means “sunny” or “like the sun.” I think here of the popular song “You are my sunshine.” Certainly he brought great lightness and joy to his parents. He was we are told blessed by God. Although it is not signified here there is a time gap between verses 24 and 25. Samson is born, and then we jump forward about 20 years. Samson is now a young man. It is at this time that the Holy spirit began to empower and equip him for his future mission. Let us move on to look at his Philistine wife.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햇빛” 또는 “해와 같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너는 나의 선샤인'이라는 노래가 생각난다. 확실히 그는 부모에게 큰 가벼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지는 않지만 24 절과 25 절 사이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고 우리는 약 20 년 전으로 건너뛰니다. 삼손은 이제 청년입니다. 이 때 성령이 그의 장래의 사명을 위해 능력을 부여하고 준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블레셋 아내를 살펴보겠습니다.

Samson's Philistine wife

1 Now Samson went down to Timnah, and saw a woman in Timnah of the daughters of the Philistines. 2 So he went up and told his father and mother, saying, “I have seen a woman in Timnah of the daughters of the Philistines; now therefore, get her for me as a wife.” (Judges 14:1-2)

We see here in chapter 14 Samson's problems beginning. Some of his character flaws become apparent. In simple terms the issue was always over his inability to control his passions or desires. Or we might say his failure to master his fleshly side. It's an issue that all of us continue to deal with. In Samson's case he was drawn to women that he should have avoided. In this instance it was a Philistine woman from Timnah. Timnah was a nearby town located in the Philistine region. The fact that he was visiting Timnah shows us that God's people were intermingling with people they were supposed to be avoiding. Whilst in Timnah Samson spots a stunning woman.

When he saw her it was "love, or perhaps lust at first sight." He greatly desired her and wanted his parents to arrange the marriage. Dating as we know it today was unknown in the ancient world. Instead, parents would meet and arrange matches for their children. This practice still continues in many places today.

Samson's parents however are quite rightly against this match. They did not want him to form a union with the pagan enemies of God's people. We know that even today Christians are not to marry non-believers. If they do then it frequently leads to problems. This was clearly what Samson's parents thought about this issue. They knew that intermarriage to people of the nations surrounding Israel was a very dangerous thing. God had specifically forbidden it. This sadly did not seem to concern Samson. His desire had destroyed all reason. He also ignored his parents wishes for him to marry a woman from Israel.

In acting and thinking like this Samson shows great disregard both for God and his parents wishes in demanding that they arrange the marriage. Eventually his parents give in and the family travel to Timnah and the marriage is arranged. We actually find out in chapter 14 verse 4 that the marriage was all a part of God's plan. It is during this journey that we are first get a glimpse of Samson's mighty strength. It's interesting to speculate on Samson's appearance. What comes to your mind when you picture Samson? Was he thick set and bulging with rippling muscles? Or did he appear like a normal man but became powerful when God came upon him. I rather suspect the latter. Let's learn about his first feat of strength.

Whilst he was in the vineyards of Timnah he is attacked by a lion. Remember one of the Nazarite vows was to abstain from any alcoholic product. So why was he in the vineyards? The lions that once lived in Israel were Asiatic lions. Whilst smaller than African lions they are still fierce and powerful creatures. The lion attacks him and Samson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tears it apart in the same way that one tears apart a young goat. I don't know about you but if I was ever to butcher an animal I doubt I would tear it apart by hand. Still the description conveys the mighty power God gave him. Later he would return to the carcass to find some bees and honey there. Again remember the Nazarite vow not to come into contact with dead things. You should be getting the picture that Samson is a little half-hearted when it comes to his Nazarite vow.

Later he throws a drinking feast for 30 people to attend. Once again think back to the Nazarite vow to abstain from all alcoholic products. Even if he himself didn't drink the temptation would have been considerable. Samson poses a riddle for the men to solve. They had seven days (the length of the festivities) in which to give him the answer. The riddle was not just for fun, it had a prize connected to it. If they cannot solve it they must present Samson with linen garments and clothing. If they do solve it Samson must give them linen and clothes. The riddle was impossible for those who had were not familiar with the situation to solve. The men are desperate because it would have been very expensive to meet the wager set by Samson. So the men threaten Samson's wife in order to make him reveal the solution.

She cunningly twists and presses Samson into revealing the answer. Her nagging and crying is successful and he tells her the answer which she tells the men. Samson is angry and embittered about her manipulation of him. In order to pay them what was owed he travelled to Ashkelon and killed thirty of their men. He then took their possessions and gave them to the men with whom he had wagered. After this Samson's anger was greatly aroused. He returned to his father's house and whilst he was absent his father in law gave his Philistine wife to his best man. Let us finish up today's study by talking about Samson's first fights with the Philistines.

우리는 여기 14 장에서 삼손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의 성격 결함 중 일부가 분명해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문제는 항상 자신의 열정이나 욕망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는 그의 욕신의 면모를 다스리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삼손의 경우 그는 피해야 할 여자들에게 끌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딘나 출신의 블레셋 여자였습니다. 딘나는 블레셋 지역에 위치한 인근 도시였습니다. 그가 딘나를 방문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피해야 할 사람들과 섞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딘나에서 Samson 은 멋진 여성을 발견합니다. 그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것은 "사랑, 아니면 첫눈에 반한 욕망"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몹시 원했고 그의 부모가 결혼을 주선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트는 고대 세계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대신에 부모는 자녀를 만나 성년을 주선합니다. 이 관행은 오늘날에도 많은 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Samson 의 부모는 이 경기를 반대합니다.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이교 적들과 연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하면 종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삼손의 부모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과 통혼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특별히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슬프게도 삼손과 관련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욕망은 모든 이성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바람을 무시했습니다. 삼손은 이와 같이 행동하고 생각함으로써 결혼을 주선해 달라는 요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의 부모의 소원을 크게 무시합니다. 결국 그의 부모는 행복하고 가족은 딘나로 여행을 떠나 결혼이 주선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14 장 4 절에서 결혼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발견합니다. 이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는 삼손의 막강한 힘을 처음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등장을 추측해보는 것도 흥미롭다. 삼손을 떠올리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그는 두툼하고 졸졸 흐르는 근육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을 때 능력이 되었습니까? 나는 오히려 후자를 의심한다. 그의 첫 번째 힘의 위협에 대해 알아보자. 딘나 포도원에 있을 때 사자에게 습격을 받습니다. 나실인의 서원 중 하나는 알코올 제품을 멀리하는 것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그가 포도원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때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자는 아시아 사자였습니다. 아프리카 사자보다 작지만 여전히 사납고 강력한 생물입니다. 사자가 그를 공격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삼손이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 모르지만 내가 동물을 도살한다면 나는 아마도 손으로 찢어 버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묘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강력한 능력을 전달합니다. 나중에 그는 시체로 돌아가 그곳에서 꿀벌과 꿀을 찾을 것입니다. 죽은 것을 만지지 않겠다는 나실인의 서원을 다시 한 번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삼손이 그의 나사렛 서원에 관해서 약간 마음이 아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는 30 명이 참석할 수 있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알코올 제품을 삼가겠다는 나실인의 서원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그 유혹은 상당했을 것이다. 삼손은 남자들이 풀도록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들은 그에게 답을 줄 7 일(축제 기간)이 있었었습니다.

수수께끼는 단지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 관련된 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 그들은 삼손에게 아마포 옷과 의복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풀면 삼손은 그들에게 아마포와 옷을 주어야 합니다. 그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풀 수 있는 수수께끼는 불가능했다. 남자들은 삼손이 세운 내기를 맞추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해결책을 알려 주려고 위협합니다. 그녀는 교활하게 꼬아서 삼손을 압박하여 답을 알려줍니다. 그녀의 잔소리와 울음은 성공적이었고 그는 그녀가 남자들에게 말하는 대답을 그녀에게 알려줍니다. 삼손은 자신이 자신을 조종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분노합니다. 그들에게 빚진 것을 갚기 위해 그는 아스글론으로 가서 그들의 부하 삼십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가 내기를 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삼손의 분노가 크게 솟구쳤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그가 없는 동안 시아버지는 블레셋 사람 아내를 가장 좋은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처음으로 싸운 이야기를 하며 오늘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Samson's first fights with the Philistines

Chapter 15 of Judges details a number of encounters Samson has with the Philistines. The first details Samson's act of revenge because his wife was given to another man. Samson catches 300 foxes, the Hebrew word also referred to a jackal. He ties the creatures together and places flaming torches on their tails. He then sets them off to run through the Philistine's grain fields. As planned there is great destruction. The Philistines seek the culprit and are told that it was Samson. When they find out why he did it they take his Philistine wife and her father and burn them to death.

When Samson hears about this he again seeks revenge for what has been done. He attacks and kills a large number of Philistines. After this he retreats to a cave in the rock of Etam. The Philistines want to capture and kill him and so send a large force against the city of Lehi in Judah. The men of Lehi are puzzled as to why the Philistines are coming against them. When they learn that it is Samson they are looking for they send 2000 men to go and find Samson in his cave. Some scholars suggest that the Philistines had taken the weapons of the Israelites. They were helpless then to defend themselves and would rather give Samson up than fight. Samson says he will surrender to them if they promise not to kill him. This demonstrates Samson's realisation of this situation. If he had not surrendered the Philistines may have destroyed the city of Lehi. The men of Lehi take him bound with ropes to the Philistines. This indicates that Samson had great faith in God. Even though bound and being taken to his enemies he trusted God to deliver him.

When he is delivered to the Philistines he breaks free from his bonds and taking the jaw bone of a donkey kills a thousand Philistines with it. It was a famous victory for the one man army of Samson. Next week we will continue Samson's story.

사사기 15 장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만난 여러 가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삼손의 복수 행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삼손은 여우 300 마리를 잡았는데 히브리어로 자칼이라고도 합니다. 그는 생물들을 하나로 묶고 꼬리에 불타는 횃불을 놓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을 지나도록 그들을 출발시킵니다. 계획대로 큰 파괴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범인을 찾아보니 삼손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내고 그의 블레셋 아내와 그녀의 아버지를 데려다가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다시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죽였습니다. 그 후 그는 Etam 의 바위에 있는 동굴로 후퇴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죽이고자 큰

군대를 보내 유다에 있는 리하이 성을 공격합니다. 리하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치러 오는 이유에 대해 어리둥절합니다. 그들이 삼손임을 알게 된 그들은 2000 명을 보내어 삼손의 동굴로 가서 삼손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기를 빼앗았다고 제안합니다. 그때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없었고, 싸우느니 차라리 삼손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삼손은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항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삼손이 이 상황을 깨닫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항복하지 않았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리하이 성을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리하이의 사람들은 그를 밧줄로 묶은 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졌음을 나타냅니다. 결박되어 적들에게 끌려갔지만 그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졌을 때 그는 결박에서 풀려났고 나귀 턱뼈를 빼앗아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일천명을 죽였습니다. 삼손 일인 군대의 유명한 승리였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just two comments to make about today's passage.

오늘 본문에 대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A good ending is just as important as a good beginning

I remember many years ago entering a 5km running race. In those days I jogged regularly and 5 km is not that great a distance. However a number of my work acquaintances were also running in the race. There was lots of friendly rivalry between us about who would be faster and record the best time. I was very eager to do well. So when the gun went I sprinted off. Leaving all my friends way behind. The problem was when I got to the 2km mark I was exhausted. All my energy was gone and it was all I could do to plod slowly along. I watched in horror as my friends caught up and passed me. I learned that day that a good ending is just as important as a good beginning.

The same can be said for Samson. What an amazing beginning he had. The Lord Jesus appearing to his parents to tell them their son was to be special. He was raised by doting and loving parents. And yet he could not maintain his good beginning and his life started to unravel, and he ended very badly.

Our Christian lives are a marathon and not a sprint. All our efforts should be upon running the race well. We do not know when the end will be. But we should run the race and live our lives as if the end is just over the next hill. That way we end well and please our heavenly Father.

나는 몇 년 전에 5km 달리기 경주에 참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는 조강도 꾸준히 했고 5km 도 그리 먼 거리가 아니다. 그러나 내 직장 지인 중 다수도 경주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빨리, 가장 좋은 시간을 기록할지에 대해 우리 사이에는 많은 우호적인 경쟁이 있었습니다. 잘하고 싶은 욕심이 컸다. 그래서 총이 나갔을 때 나는 전력 질주했다. 모든 친구들을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문제는 2km 지점에 도착했을 때 지쳤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에너지는 사라졌고 천천히 따라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나는 친구들이 나를 따라붙어 지나치는 것을 공포에 질려 보았다. 좋은 시작만큼 좋은 마무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날 배웠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얼마나 놀라운 시작을 가졌는지. 주 예수님은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아들이 특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다정하고 사랑이 많은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좋은 시작을 유지할 수 없었고 그의 삶은 꼬이기 시작했고 그는 매우 나쁘게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경주를 잘 달

리는 데 있어야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주를 하며 끝이 다음 언덕을 넘은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잘 마무리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2 The need for separation

God called Samson to a special kind of separation. He was supposed to keep himself separate from things that defiled or made him unclean. Today Christians are not called to make Nazarite vows. But we are called to carefully consider how we live and engage with the world around us. Perhaps as a young man Samson felt left out when he saw his friends drinking or partying. But there was a good reason why God had chosen that life for him. Equally we may at times wonder why the fleshly pleasures of this world are not for us. Again there is a good reason. This world is Satans and that is why it delights in sin and depravity. Sadly many Christians today are just like the world around them. So much so that they do not stand out or appear special in any way.

We are God's children and we are to be salt and light in this world. That is why we need to remain separate. Let us then consider where we need to be more discerning. Let us seek to live good lives that honour God and reflect His glory to the world.

하나님은 삼손을 특별한 종류의 분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더럽히거나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서원을 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주변 세계와 관계를 맺는지 주의 깊게 고려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아마도 삼손은 젊은이였을 때 친구들이 술을 마시거나 파티를 하는 것을 보고 소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그 생명을 선택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의 육적인 쾌락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기 때문에 죄와 타락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거나 어떤 식 으로든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분별력이 있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선한 삶을 살도록 합시다.